

울금향 꽃바다를 자랑하는 장춘공원

따뜻한 5월에 접어들어 장춘공원은 아름다운 울금향 꽃바다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나비들이 꽃주위를 맴돌며 춤춘다.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울금향을 배경으로 앳다투어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꽃향기에 취해 여유를 즐기기도 한다. / 글 손맹번기자 / 사진 류항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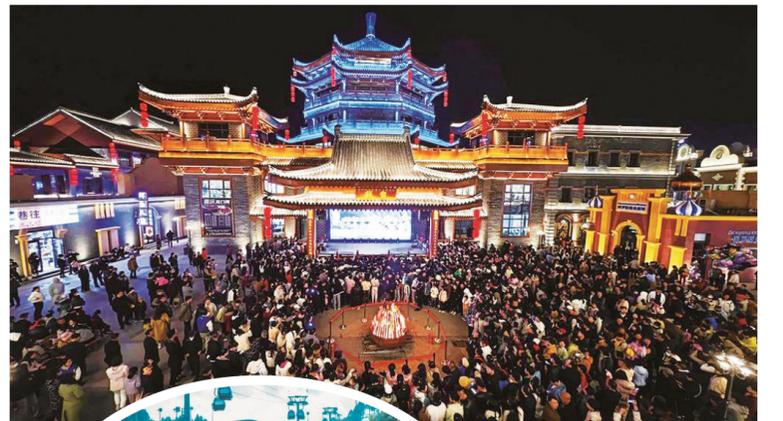


아름다운 통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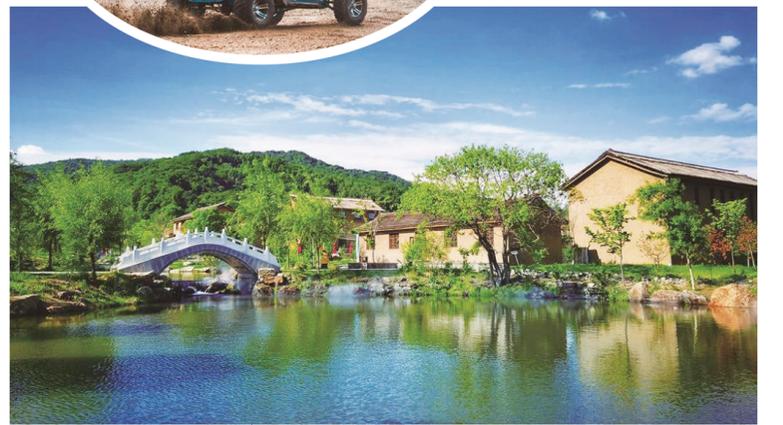
장백산 명주로 알려져있는 통화, 여기저기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사계절 관광객을 흡인한다. 통화는 사계절이 분명하다. 봄에는 진달래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빙설을 체험할 수 있다. 통화는 세계 황금위도 벨트에 위치한 녹색립체모굴이다. 통화의 청산록수와 백산흑토는 중국 최초의 '의약도시'(医药城)를 탄생시켰다. 또한 통화는 중국에서 유명한 '중국 인삼의 고향'이자 '중국 포도주의 도시'이다. '국가급 인삼', '국가급 포도주'를 특색으로 한 '인삼의 길', '포도주 양조 여행' 등 특색 브랜드 및 피서레저, 건강휴양 제품 등은 통화를 레저지향의 목적지로 만들었다. 통화에는 4개의 국가자연보호구, 5개의 국가삼림공원, 54개의 국가 A급 관광명소가 있다. 관광객들은 고산 운석공 세계 기관을 조망할 수 있는 백계봉(白鸡峰), 휘남 조수호(吊水壶)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폭포, 두 나라 풍경을 볼 수 있는 압록강 그리고 국내 최대의 화산구 호수군(湖群)과 화산 용암동굴을 유람하며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 길림일보



● 동가강풍경관광리조트 일각



- 통화 룡흥리 문화관광마을 야경
- 만봉통화스키리조트에서 신나는 휴가를 즐길 수 있다.



● 서협황(西夹荒) 관광리조트